



##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한마음음악제** 한마음선원(주지혜 원)이 11월 12~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한마음음악제'가 1만여 청중에게 큰 법열을 전하고 성료됐다. 1300명이 무대에 오른 이번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소외계층 지원에 쓰인다.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은 12일 첫 공연 후 리셉션에서 "공생 실천이 절실한 때에 그 뜻을 음악으로 전하니 그 울림이 더욱 감동적이었다"며 출연진과 관계자, 동참대중에게 "힘 모아 소원성취하십시오"라고 축원의 박수를 보냈다. 12일 첫 공연에는 조계종 조계원장 법등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불교인권위원회장 진관 스님,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이계진 前 국회의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기사 12·13면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사진=박재관 기자 wanihollo@hanmail.net

## 심각한 돈교 폐해 ... 연기에 답 있다

[錢] (緣起)

윤성식 고려대 교수 주장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돈을 믿는 돈[錢]교'이다."

세계 곳곳에서 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불교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11월 16일 불교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중앙종무기과 대중강연회에 참석해 불교가 시장과 자본은 허용하면서도 이기심과 탐욕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도 아니다"라고 단언하면서 "현대인들의 으뜸가는 종교는 '전지전능한 돈을 믿는 돈[錢]교'이다. 돈교가 노출한 문제점인 현대 시장자본주의는 인간을 존중하는 윤리를 실종하고 재벌기업과 강자 중심으로 경제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성식 교수는 불교가 재물과 무관하다는 일반적 인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석가모니 당시 상공업자들은 부처님의 가장 열렬한 후원자였으며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이치를 인정하고 금융업을 권장

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이를 '연기자본주의'로 설명했다. 윤성식 교수는 "불교자본주의는 '연기자본주의'이며, 불교경제윤리와 불교자본주의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불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연기(緣起)'를 이해하면 인간, 기업, 사회, 정부, 세계가 모두 연기적 존재로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연기적 관점에서는 특정 대기업이 경제를 장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모두가 공생공존하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해외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책을 통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내 기업을 보호했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이러한 연기적 관계로 공생을 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엄청난 이익을 남긴 기업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가. 정부가 국민 세금(구제 금융)으로 기업을 살린다. 이익이 나면 독점하고 손실은 사회적 공유로 돌리는 것은 불합리 하다. 이익도 초과 이익에 한해서 사회적 공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식 교수는 "인간의 이기심과

역량을 그대로 둔 채로는 어떤 대안도 불가능하다"며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구성원이 어리석음과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구성원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불교경제윤리 8원칙 등 불교 교리에 기반해 상세한 실천 윤리를 제시했다.

윤 교수가 제안한 불교경제윤리 8원칙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 세상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라 ▷소비자를 위해 자리아타적 생산 활동을 하라 ▷정념(正念)을 지닌 경제의사결정과 행위 ▷정견(正見)을 지닌 경제의사결정 ▷자리아타와 자비의 경제윤리 ▷무아적 소유 · 경쟁 · 분배의 경제윤리 ▷중도적 경제행위 ▷절제의 경제윤리 등이다.

윤성식 교수는 "연기자본주의를 단순히 말하면,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중산층과 기업은 절제해야 하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동등하고 공존적인 연기적 경제관계를 이루기 위해선, 단지 물질적인 복지 해택이 아니라 공평하고 자비로운 사회가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 조계종 원로스님들 선거법 개정 요구

종단의 원로·지도급 스님들이 문경 봉암사에서 11월 7일 열린 '자성과 해신결사 추진본부' 1차 자문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스님들은 '중대 결단' 등을 언급하면서 현행 금권 선거와 계파 중심 선거 풍토를 지적했다. 또한 스님들은 총무원장 직선제 등 개선 방안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법안 스님은 16일 소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원로스님들의 공정한 선거에 대한 요구가 높다. 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 진각종 제11대 성초 총인 추대법회

24일 오후 2시 총인원서

진각종 제11대 성초 총인의 추대법회가 11월 24일 오후 2시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봉행된다. 이에 앞선 23일 오후 총인원에서는 <종조범이 실행론> 봉행식과 제11대 성초 총인 보통 승수 의식이 진행됐다.

성초 총인은 10월 25일 진각종 원로회의기구인 인의회(의장 도훈) 회의에서 5년 임기의 총인(조계종의 종적 격)으로 추대됐다.

진각종 제11대 총인으로서 추대된 성초 정사는 제3·4·5·6·7·8·9·11대 종의회 의원과 제6대 중앙교육원장 겸 진각대학장, 제25대



통리원장, 제12대 종의회 의장 등을 차례로 역임하고 남부십인당 주교를 거쳐 현재 해원십인당(서울 서교동) 주교로 있다. 1999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조동섭 기자

## 티베트에 자유를

조계종, 이레적 논평 발표

자유와 독립을 촉구하는 티베트 스님들의 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계종이 애도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이 티베트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계종 대변인 정만 스님은 "티베트 스님들이 연이어 독립과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분신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조계종 종도들은 깊은 안타까움과 연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종단은 티베트 상황에 대해 같은 부처님 제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티베트 스님들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은 보장돼야 하며 티베트의 인권상황 역시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만 스님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 대화와 타협으로 티베트의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csetana@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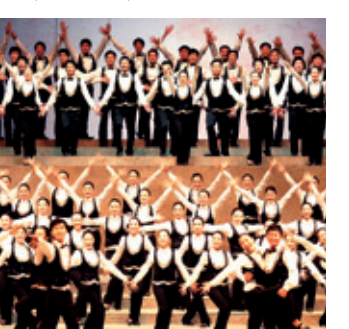
## 863호 CONTENTS

종단 2  
관문사서 한일불교교류대회  
제가자 그룹 불교포럼 발족  
성호 스님총무원 청사 앞 1인 시위

인터뷰 3  
포교원장 지원 스님

학습 6·7  
전태종 국제학술대회

특집 12·13  
한마음음악제



현장속으로 22  
국제선센터 개원 1주년



**농인향당**  
농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점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입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사상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정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www.hyunbulshop.com

